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70-7132-0091~5 SUNGKYUL NEWS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제637호

목회자 하계수련회, 360여 성결인 여수서 영성과 쉼 얻어

목회일상의 작은 쉼표… 충전과 은혜 행복한 기록 남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 가족들이 참여한 2026년 목회자 하계수련회가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주제로 여수시 소재 베네치아호텔과 일원에서 개최됐다.

8월 2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목회자들이 잠시나마 사역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째날 저녁시간에 드려진 개회예배는 서기 강명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목사와 사모들만으로 구성된 찬양팀 원 그레이스(One Grace) 찬양팀이 첫선을 보이며 찬양을 인도했다. 이어 부총회장 황제돈 장로의 기도, 성경봉독, 블레스 중창단의 특송 등이 이어졌다.

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쉬고 일어나 다시 가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목회자 역시 사역의 과정에서 지칠 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옹기장이 찬양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직전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및 기도회의 시간에는 오메가교회 담임 황성은 목사가 나서서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졌다. ▷2면에 계속

장로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 및 하계수련회

'창조의 목적대로 사중복음의 증인되자' 주제로 성료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이천 장로)가 제54회 장로회 전국대회 및 하계수련회를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갖고 교단과 장로회 발전을 위한 변화와 전진을 다짐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중복음의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예배와 세미나 등을 통해 선교 21세기를 향한 장로들의 자세를 되새기고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수석부회장 노재억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전 회장 황제돈 장로의 기도와 예성 장로합창단의 특별찬양, 총회장 이종만 목사의 설교와 축하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총회장은 이날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자'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충성된 종은 준비하는 자이며, 충성된 종은 살려내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증경장로부총회장회 회장 강환준 장로, 원로·공로장로회 수석부회장 이철구 장로,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차천용 장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총회와 지교회를 위하여, 장로회 부흥을 위하여 각각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회장 오광섭 장로, 기성장로회회장 손재형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혜경 권사가 참석해 각각 축하의 메세지를, 부총회장 황제돈 장로, 총무 권순달 목사도 격려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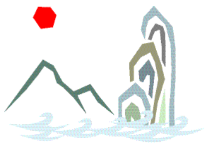
대회 중 열린 세미나에서는 '5無 교회가 온다'의 저자이며 전략브랜딩 회사 인권앤파트너스의 황인권 대표가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심어주었다.

저녁시간에 진행된 특강은 성결대 신학대학원장 윤영훈 교수가 나서서 '새로운 노인이 온다'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 이천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적전쟁이며 이는 성령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영암골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주(州)도로 금융과 무역, 바닷물이 깊게 들어와 형성된 베이(만), 안개와 언덕, 케이블카, 지진(1906년), 한 해 5천여만 명이 찾는 관광, 반도체(실리콘밸리), 게이(동성애)의 도시 등 많은 이름이 따라붙는다. 그리고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이 도시의 또 다른 별명이 황금의 도시(Golden City)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작은 1848년으로, 금광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황무지였던 이곳에 골드러쉬로 인구급증과 상권이 형성되었고 교회와 학교, 은행 등이 세워지며 도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바다와 연결된 덕에 무역이 활발해지고, 석유가 발견되고, 수십 년 전에는 인근 지역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어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생산되어 지금은 AI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이 도시가 오늘의 모습으로 번영되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듯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청사 지붕(Dome)은 황금 도시를 상징하는 황금으로 덮여있다.

이 도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67년 스콧 메켄지(Scott Mckenzie)가 부른 노래 '샌프란시스코' 때문일 것이다. 당시 열린 음악축제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가수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거기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 사랑의 집회가 올여름 열릴 거예요 /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평화, 사랑, 자유를 담은 환갑이 가까운 이 노래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그 당시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후 수많은 이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어 오늘날 이 도시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 도시 이름은 18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지은 이름으로 평생을 '청빈, 순종, 봉사'의 본을 보였던 이탈리아 아시스 출신의 '성 프란치스코'에서 따온 이름이다. 시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련과 절망의 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오늘을 이루고 있다.

3년 만에 찾은 이 도시를 2일 동안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자유와 평화가 정착된 통일된 나라로 발전되기를 기도했다.

우리도 교회에 갈 때 머리에 꽃 하나씩 꽂고 가면 어떨까요?

清水 ehc3s@hanmail.net

감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제15대 박광일 이사장 이임 및 제16대 김성진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사

모시는 글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 학교법인성결신학원(성결대학교)을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15대 박광일 이사장 이임 및 제16대 김성진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장소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6층) 야립국제회의실
※ 이 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이임

박광일 목사

신임 김성진 이사장 약력
• 성결대학교 신학과 졸업
•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숭실대학교기독교학대학원(Th.M)
• 성결대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역임
• 현 광명교회 담임목사

취임

김성진 목사

학교법인성결신학원 이사장 이 · 취임 준비위원회위원장 유훈주